

작년에 이어 캄보디아를 다시 갑니다.

인구 천오백만의 나라, 1975년부터 3년 넘게 지속됐던 크메르 루즈의 대학살과 가난으로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한꺼번에 잃었던 민족 캄보디아는 인구의 대부분이 불교를 신봉하고, 소수의 민족이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대학살 박물관 속의 죽은 자들의 사진이 어른거려 지나치는 사람, 누굴 봐도 마음이 아렸습니다.



올해 1월에 갔던 바탐방이라는 소도시에서 저희는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는 즐거운 무리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나이밖에 되지 않는 친구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난 후에는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기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세우고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곳 사교사님은 이 나라의 분들은 믿으면 곧바로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육 받지 못해 뿌리가 약하고 세워진 시골의 기들이 계속해서 양육할 사람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친구들은 이 바탐방 지역을 비롯해, 중국 가정기에서 세운 캄봉섬과 다른 몇 사역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기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 이이

09년에 만나서 11년에 삶의 변화를 맞고, 올해 들어 말씀이 부딪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예쁜 자매입니다.

무엇을 시켜도 늘 웃음으로 감당하는 이 친구는 차기 리더 중 하나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 존



이번에 존이 친구들에게 보낸 간증 편지에서 친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2010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진 유능하고 선량하고 똑똑한,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의 저는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고, 공허했으며, 폭음과 폭식, 음란과 정욕에 묶여 결코 쉼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까지 2년여 동안 그분을 좀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분이 값 주고 대신 사셔서 베풀어주신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 운남성의 바이주라는 소수민족 아가씨 시아

2010년부터 순조롭게 그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편지에 보니, 집에서 너무나 외로웠던 것.

늘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결코 떨칠 수 없었던 것.

이유를 찾지 못해 사는 게 의미가 없었던 고통,

가고 싶었던 대학에 실패하고 지금의 대학으로 오게 하신 모든 것이, 알고 보니

다 아버지의 인도하심 이었다고 감사하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올 해 대학원에 자동 진학하게 된 자매는, 작년에 믿음 때문에 이미 가입되었던 당원에서 나오겠다고 해, 학교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을 갖은 회유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대학원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들이 내렸다 취소됐다는 반복했습니다. 친구는 안되면 직장 잡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여러 사람의 판단의 눈초리와 매서운 말투에 많이 울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우기입니다. 덥고 습하고, 아주 가난합니다. 시골 마을은 물도 전기도 먹을 것들도 부족합니다. 여러 지역을 옮겨가며 직접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 손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